전역 군종병들 군법당 세웠다

20여명 신행회 만들어 십시일반 모금

화천 관음사 새건물 낙성…위문법회도

전역 군종병들이 자신이 몸담았던 군법당을 새로 지어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예비역 군법사들이 아닌 군종병들이 군법당을 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도 화천 사창리 소재 27사단 78연대 법당 호국관음사에서 군종활동을 한 전역병 20여명이 바로 그 주인공. 이들은 7일 50여평의 현대식 새 법당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여법하게 치렀다.

사창리 인근 불자장병들의 유일한 신행터전인 관음사는, 지난 76년 25평의 독신 장교 숙소(B.O.Q)를 개조해 만든 임시 법당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장병들이 불법에 귀의한 전법도량이다. 이에 비해 법당의 시설은 최악의 상태. 25년의 세월이 흐르다보니 구석구석이 낡아 비가 새는 등 법회조차 마음 놓고 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또한 갈 수록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 장병들이 늘어나 더 넓은 법당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곳에서 군종 활동을 한 군종병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법당 신축불사'일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원력이 실천행으로 이어진 것은 관음사에서 군종활동을 하다 전역한 군종병들에 의해서였다. 전역 후 한 두명씩 만나다가 모임으로 확대돼 '관음회'가 결성됐다. 이들은 그동안의 원력을 실천에 옮기자는 데 뜻을 모았다. 관음사의 발전과 불자 장병들의 원활한 신행활동을 위해 뒷바라지를 하기로 하고 가장 시급한 새 법당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음회 회원들과 불자 장병들이 7일 호국관음사 신축 낙성식을 마치고 관음사 앞에서 기념촬영했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회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5월 기공식을 갖게 되었고, 기공 후 5개월 만인 7일 회향식을 갖게 됐다. 관음사의 불사는 군종병들의 보시금을 바탕으로 했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만 보시를 받았다.

관음사 법당 신축불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오심 스님(통도사 포교국장). 스님은 "군포교의 최일선에서 활동을 한 군종병들이 전역 후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현역 불자 장사병들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보시를 해 법당까지 마련해 준 일은 모든 불자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관음회원들의 활동은 법당불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매년 두 차례, 부처님 오신 날이 들어있는 5월과 관음사 창건 기념일인 10월에는 회원들이 모두 관음사를 찾아 위문법회를 갖는다. 이제는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다.

연대나 대대급 법당의 경우 사단 법당과는 달리 군종병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석예불은 물론 정기법회와 기도 등 군법사의 몫까지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사단 예하 부대에서 군종활동을 하다 전역한 군종병의 경우 군법당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은 대부분 안타까움에서 그치고 만다. 바로 이런 점에서 화천 관음사를 새롭게 신축하고 매년 두차례 위문법회를 갖는 전역 군종병들의 불심이 유난히 돋보이는 것이다.

김중근 기자 gamsi@buddhapia.com

◇500여명의 미륵암 신도들은 8일 미륵불 점안법회를 열고, 개신교계의 강제철거 주장에 맞서 도량수호를 다짐했다.

봉래산 미륵암 수호 결의

강제철거 맞서 봉불식 갖고 토지매입 촉구

개신교 재단이 운영하는 부산 고신대내에 위치해 고신대 학생회측과 마찰을 빚어온 영도 봉래산 미륵암(주지 혜정)이 8일 미륵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도량 수호를 다짐했다.

1920년 창건된 미륵암은 고신대가 들어서면서 진행된 토지거래과정에서 미륵암의 토지가 고신대 소유로 되어, 고신대측이 강제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미륵암 신도들은 "고신대가 들어서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온 정신적 귀의처를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고신대측이 종교적 화해 정신을 발휘해 토지매입 협상에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이 7m, 둘레 2.5m 청동 800관으로 조성된 미륵불의 봉안식을 가진 혜정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고신대측과의 갈등으로 철거위기에 놓인 시점에도 많은 불자들의 정성이 모인 미륵불을 봉안하게 되어 뜻깊다"며 "모든 불교도들이 힘을 모아 이 도량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고신대는 토지거래과정에서 미륵암의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임을 주장, 학생회가 미륵암앞에서 기도나 집회를 벌이며 철거를 주장하고 있어 미륵암 신도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부산=천미희 기자

◇분당 대광사는 7일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불보전 낙성및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수도권 포교 거점

분당 대광사 대불보전 낙성

수도권에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전통사찰 건립을 발원한 천태종이 종단의 총력을 기울여 건립한 분당 대광사(주지 운덕)가 7일 대불보전 낙성 및 삼존불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연건평 1200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립된 대불보전은 3층에 법당, 2층에 요사채, 1층에 종무소 및 각 신도회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7일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각계 귀빈 등 1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거행된 법회에서 운덕 스님은 "종단의 또하나의 대작불사가 이루어져 기쁘다"면서 "대광사가 대불보전 낙성을 계기로 수도권 불교를 중흥시키는 센터가 되어 새 시대 한국불교의 도약을 이뤄갈 수 있도록 포교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민주당 한광옥 대표와 한나라당 하순봉 부총재를 비롯 임태희 조성준 고흥길 의원, 김병량 성남시장, 박문석 종무실장 등 정관계 인사 다수가 참석했다.

대광사는 향후 전통목조 2층 대법당과 종각, 누각, 일주문 등 전통가람 형식을 갖춘 불사를 계속 추진한다. (031)715-3000

이경숙 기자

광덕스님 부도·비 제막

불광사, 사회과학硏도 설립

'불광 반야바라밀 사상 운동'으로 대중포교에 혁혁한 빛을 남긴 금하당(金河堂) 광덕 대선사(1927~1999)의 행적비(사진)와 부도 제막식이 21일 오전 11시 스님의 출가 본사인 부산 범어사에서 봉행된다. 또 스님의 열반 3주기를 맞아 불교와 사회과학간의 소통을 강조했던 광덕 스님의 뜻을 받들어 상좌스님들이 '불광사회과학연구원(원장 · 지성)'을 설립한다. 연구원은 그 첫 사업으로 '광덕 큰스님 법어 총람 및 주해 요람'과 '불광수행요전'을 간행하는 등 불광정신 연구를 본격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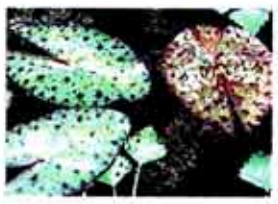
불광법회 주최로 21일 열리는 광덕 스님 행적비 · 부도 제막식은 1부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가산불교문화원장인 지관 스님의 법어와 범어사 주지 성오 스님 등의 추모사, 비문 낭독, 2부 부도전 합동분향 참배 및 불광마하보디 합창단의 합창 등으로 진행된다.

광덕 스님의 행적비 비문은 도반 일타 스님이 열반에 들기 3개월전에 썼으며 글씨는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법진 정웅표씨가 담당했다. 이경숙 기자

둔덕 가시연꽃 군락지

생태보전지역 추진

충북 보은군 삼승면 둔덕리 둔덕저수지 일대 가시연꽃(사진) 군락지에 대한 생태보전지역 지정이 추진된다.보은군은 이곳에 자생하는 세계적 희귀식물인 가시연꽃 보호를 위해 최근 충북도에 이 일대 3만2천㎡에 대한 생태보전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곳에는 3~4년 전부터 가시연꽃이 자생하기 시작, 올들어 저수지 전체 면적(2만3천900㎡)의 10% 정도를 뒤덮을 정도로 개체 수가 늘어났다. 군관계자는



"최근 전국에서 모여든 사진작가와 관광객들로 가시연꽃 군락지가 훼손될 우려가 커 생태보전지역 지정을 요청했다"며 "이 일대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1억여원을 들여 저수지 주변에 보호망을 설치하고 전망대 및 사진촬영대 등을 만들어 훼손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부산불교연 장의사업

염습 등 최저비용 서비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가 불교복지사업본부를 설립하고 저렴한 장례비용의 장의사업을 펼친다.

상례가 모든 사람들이 한번씩 겪게 되는 통과의례인 것에 착안, 종파를 초월한 1,300여개 사찰 스님들의 뜻을 모아 장례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 부산불교연합회는 24시간 연체라도 장의 상담에 임하게 되며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장례용품, 차량 지원에서부터 납골 혹은 매장에 이르기까지 최저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051)867-6411~2

부산=천미희 기자

대전시내 사찰 모두 191곳

10년새 31% 늘어…개신교회는 1천3백56곳

대전시내에 있는 사찰과 포교당은 모두 191곳. 10년만에 30.8% 증가했다. 또 각종 종교단체의 교당은 시민 865명당 한곳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9일 펴낸 〈2001 성장통계〉 책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대전시의 교당은 총 1,607곳으로 시민 273가구당 한곳(전체 43만9,312가구)꼴로서, 10년전인 1990년(934곳)에 비해 673곳(72%)이 늘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총 1,356곳으로 10년 사이에 617곳(83.5%) 늘었다. 불교는 146곳에서 191곳으로 45곳(30.8%), 천주교는 22곳에서 37곳으로 15곳(68.2%) 증가했다.

그러나 기타종교는 27곳에서 23곳으로 오히려 4곳(14.8%) 줄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전체 교직자수는 1,802명에서 3,031명으로 1,229명(68.2%) 늘었다.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한가지소원을 이루시는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특허받은 명당 육기방

<명당 육기(六氣)방>
명당 육기(六氣)방은 천지(天地)간의 좋은 기(氣)가 모이는 방이라하여 명당 육기(六氣)방이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업장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법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 주고 하늘과 땅, 동, 서, 남, 북을 육방 수호신장(守護身將)이 항상 수호해 줌으로 천지(天地)간의 좋은 혈장(穴場)명당자리가 되어 신비의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이라 합니다.

가격 : 1호 10만원, 2호 20만원, 3호 집터 표지 납골묘 전용 혹 육기방 3천 하우스 25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 벌집의 힘 ✿
1. 모여들게 하는 힘 2. 재산을 불고 들어오는 힘 3. 건강하게 자라는 힘 4. 부지런한 힘 5. 단결하는 힘 6. 정직한 힘 7. 지키는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명당육기방은 벌집과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명당육기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하고 돈이 많이 온다고들 하며 좋은 운으로 바뀐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육기방은 묘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들은 좋은 명당에만 집을 짓고 삽니다

● 말로써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의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불화가 차주 일어나고 죽느냐 사느냐하는 속사정 가운데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필요 합니다.
1.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않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리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화가 겹치시는 분 5.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 6. 결혼을 앞두신 분
7. 수험생을 둔 부모님께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지스님 친견 후에 구입하십시오.

(주) 명당 육기(氣)방 ☎ 051) 865-9933, 864-7878
일본지사(불교용품전문점)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사주명리) (오행술) (한계) (극복)

六壬來情秘法
(육임래정비법)

「活人專門天役者用」神示
(활인전문천역자용 신시)

改訂增補版

★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누구의 간계 때문인지 ●무슨 때문인지, ●천성이 약한지 선한지, ●내마음 이일을 사랑하지, 괴롭히는 속셈인지 ●사랑하지, 무관이 하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어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적시(摘示)해 놓아 미리 그 정황(情況)을 지적하므로써 래인(來人)의 인색(吝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대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낳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일을 위임지 맡겨 줄 수 있는 비밀지 ●누구를 비밀지 ●무엇부터 비밀지 ●무엇을 할 것인지, 비밀지 ●조심해야지 조심하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제워야 할지, 제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행사 당일에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온다면 몇시부터 올 것인지 등등을 매일 매시간 별로 적어 놓았습니다.

天通

아래 책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 육임래정비법 (내가 미리 상대방의 사정을 훤해어 비라는 비법) 350,000
- 육임세밀정단법 (묻는 동건에 대해 소상하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비법) 100,000
- 육임비요형이상법 (귀신침범 · 신소탈 · 빙미부정 · 일이 되는 날짜를 미리 아는 비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사주를 몰라도 간단하고 정확히 운명을 감정해 낼 수 있는 비법) 130,000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오행(五行) 또는 법력(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신령·신시(神靈·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농단(弄斷)되지 않도록 스님·음양오행가·신명제자·의사 등 활인전문천역자(活人專門天役者)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리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책배 우송해 드리므로 답신 또는 그 이틀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00-10호 임성빌딩 401호

· 출판사등록번호 :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 도봉 210-90-18989

이 책을 보십시오. 반드시 큰 것을 얻으실 것입니다.
책값이 타(他) 역서(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이책을 활용하여 회득 된 영성과 한문실력값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출판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금250,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위 책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 차원에서 매주 실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사오니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꼭 참석하시어 활인전문천역자 분들께 도움이 되십시요

서울	02-993-8680,	부산	011-558-5496
대구	053-641-2334,	인천	032-554-3789
전주	063-284-7714,	광주	017-613-7140
수원	031-242-8813,	청주	043-221-2557
대전	042-584-1709,	원주	017-377-7005

고목지 철학박사 曉 史 도서출판 卜 問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매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